

한국 가톨릭교회 성서 번역의 선구자 선종완(宣鍾完) 신부(1915-1976)

— “선종완역”(1958-1963)과 『공동번역 성서』(1977)를
중심으로 —

이환진*

1. 들어가는 말

2020년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성서 번역 역사에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 해에 한국 개신교회 선교 사상 처음으로 신약전서(『예수성교전서』, 1887)를 펴낸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의 자료집¹⁾이 남서울대학교의 박형신 교수에 의해 발간되었고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약성서를 번역한 선종완 신부의 『선종완 신부 성서번역 자료집』(전 41권)²⁾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성모영보수녀회가 펴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선종완 라우렌시오(Laurentius) 신부(1915-1976)의 성서 번역 작업을 소개하고 간략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종완 라우렌시오 신부가 1958년부터 1963년까지 혼자 번역한 이른바 “선종완역”을 소개하고 다음에는 그가 『공동번역 성서』(1977년) 번역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번역 작업을 했는지 그가 직접 쓴 글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종완 라우렌시오(Laurentius) 신부의 성서 번역 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선종완 신부의 성서 번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adcoelum@gmail.com.

1) 박형신 편, 『존 로스 자료집』(서울: 한국교회사학회, 2020).

2)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전집』(과천: 성모영보수녀회, 2020).

살펴본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³⁾ 그리고 그의 성서 번역 작업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 1> 선종완 신부의 젊은 시절⁴⁾



2. 선종완 신부와 성서 번역

선종완 신부는 한국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작업하여 1997년 부활절에 펴낸 『공동번역 성서』⁵⁾의 구약 번역 작업에 가톨릭교회의 대표로 참가한 학자이다. 이 『공동번역 성서』는 1977년에 나왔는데 선종완 신부는 이 책이 나오기 1년 전 타계하실 때까지 병상에서 곽노순 목사와 함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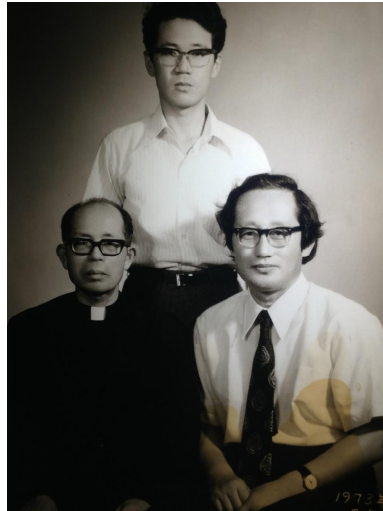
3) 아래의 여러 글에 “선종완역”(1958-1963)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李元淳, “聖書國譯史論考”, 『민족문화』 3 (1977), 44-45; 이성우,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번역사와 우리말 성서번역의 의미”,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지음,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상)』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109-110; 정인준, “선종완 신부의 삶을 통한 가르침”, 『가톨릭신학과사상』 51 (2005), 167, 173-174. 그리고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65-166은 “선종완역” 구약성서가 “다분히 직역”이면서도 “우리 고유어 표현의 잦은 빈도가 특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말씀의 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서울: 나이에미디어, 2015), 108-132는 “선종완역”과 『공동번역 성서』 작업에 그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임했는가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4) 이 논문에 실린 사진들은 2021년 9월 1일에 과천 성모영보수녀원의 선종완 신부 기념관에서 필자가 찍은 것이다.

5)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번역 평가에 대해서는 민영진, “共同翻譯 舊約聖書の 翻譯特徵”, 『신학사상』 22 (1978), 67-78;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168-179를 보라.

작업에 몰두했다. 선종완 신부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문익환 목사와 곽노순 목사와 함께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⁶⁾ 그런데 곽노순 목사는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하여 1976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문익환 목사는 그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의 구약 번역의 최종 원고는 선종완 신부가 마지막까지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선 신부는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1976년 7월 초까지 최종적으로 번역 작업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신·구교가 연합하여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마무리는 선종완 신부가 한 것이다.⁷⁾

<사진 2> 왼쪽부터 선종완 신부, 곽노순 목사, 문익환 목사 (1976년 9월)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가 나오기 전 선종완 신부는 이미 구약의 약 2/3를 혼자서 번역해 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편 창세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8.

『제2편 출애굽기·레위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제3편 민수기·신명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제4편 요수예기·판관기·루트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제5편 사무엘 전후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6) 곽노순, “히브리말 … 몽둥이 말이고 한국말은 비단 말”, 『성경원문연구』 45 (2019), 325-339.

7) 2021년 9월 1일 성모영보수녀회의 정 실비아 수녀의 설명.

『제6편 열왕기 3·4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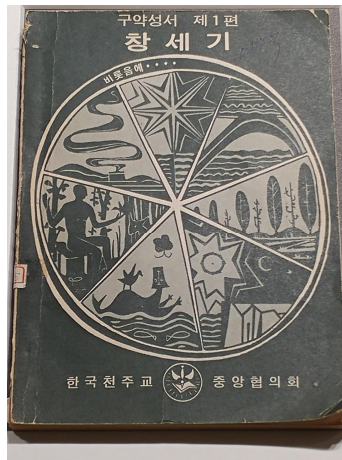
『제10편 성영』,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제12편 이사야 예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59.

『제13편 예레미야 예언서·애가·바룩 예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선종완 신부가 1958년에 설립한 경기도 과천의 성모영보수녀회에서는 2019년 12월 그의 성서 번역 관련 자료집 41권을 모두 펴냈다. 그분이 수도 없이 고친 교정 번역 원고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경을 번역했는지 잘 알게 되었다.

<사진 3> “선종완역” 『창세기』 초판, 1958년



3. 선종완 신부와 구약학

선종완 라우렌시오(Laurentius) 신부는 1915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공동번역 성서』가 나오기 1년 전인 1976년 7월 11일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선 신부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⁸⁾ (1) 1950년-1970년대에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로 가르치신 것과 (2)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성모영보수녀회를 창립하신 것 그리고 (3)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약성서를 원어에서 번역하신 것이다. 여기에

8) 정인준, “선종완 신부의 삶을 통한 가르침”, 162-169.

덧붙여 구약성서 가운데 제2경전(외경)에 속하는 바룩을 한국인 최초로 번역한 학자이기도 하다.

선종완 신부의 생애는 이분이 세우신 과천의 성모영보수녀회에서 이미 두 권을 펴냈다.⁹⁾ 따라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선종완 신부의 성서 번역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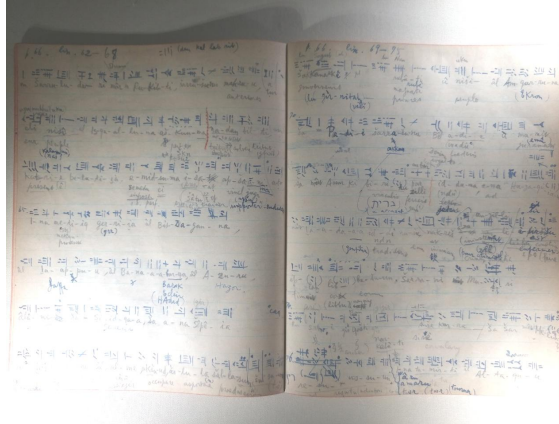
선종완 신부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4년간 자비를 들여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에서 성서학을 공부했다. 특히 구약학 공부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1951년에서 1952년까지 1년간 예루살렘 성서연구소(L'Ecole Biblique et Archéologique Française de Jerusalem)에서 성서학과 성서고고학을 공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선종완 신부는 그 이전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중앙대학 전문부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1948년에 이탈리아의 우르바노 대학(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a)에 편입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 안젤리쿰 대학(Pontificia Università San Tommaso D'Aquino) 신학연구과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결국 1950년에서 1951년까지 로마 성서대학(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De Urbe)에서 성서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분의 관심은 성서학이었다.

선종완 신부는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고대 언어에 능하신 분이어서 서울 가톨릭대학에서 성서학 교수로 가르쳤다. 이것은 그분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¹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2021년 9월 1일 과천 성모영보수녀회에 있는 선종완 신부 기념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으로는 이분이 고대 셈어 가운데 아카드어도 열심히 공부하신 것이다. 아카드어(Akkadian)는 썩기문자로 되어 있는 고대 셈어로 기원전 3천 년대 후반부터 1천 년 대까지 고대 중동에서 바빌론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이다.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언어이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성서를 가르치고 또 번역하기 위하여 현대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아카드어와 같은 고대 셈어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이다.

9)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유고집 - 말씀으로 산 사제』(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4);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서울: 나이테크미디어, 2015).

10)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61.

<사진 4> 선종완 신부의 아카드어 필사 노트



뿐만 아니라 수메르어(Sumerian)까지 공부하여 성서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선종완 신부가 처음으로 구약을 번역하여 “비롯음에”라는 부제를 붙여 펴낸 『창세기』(1958)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번역의 창세기 2:6 에는 아담이라는 뜻에 대해서 “옛날 말로서는 수메리아말에 「아다(아버지), 무(나의)」 곧 「나의 아버지」가 「아담」에 가장 가깝다.”¹¹⁾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수메르어로 “비옥한 들”이라고 창세기 2:8 의 난하주에서 설명한다.¹²⁾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을 수 있으나 선종완 신부의 성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선종완 신부가 성서 히브리어를 포함하여 북서방 셈어(North-West Semitics)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히브리어 설명에 잘 나타난다.¹³⁾

선종완 신부는 또한 성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아카드어 문헌인 텔 엘 아마르나(Tel El Amarna) 문헌뿐만 아니라 12세기의 페니키아어(“페니키아 문자”) 문헌인 아히람 석판 비문 그리고 아람어(“아라메이아말”)를 언급한다. 특히 고 히브리어(“헤브레아말”) 문자가 페니키아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마소라 학자들이 지금의 히브리어 성서의 형태를 만들어 낸 유대인 학자들이라는 것도 말한다.¹⁴⁾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의 성서 사본학적 식견이 무척 넓은 것은 다음의 설명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11) 선종완 역, 『창세기』(구약성서 제1권), 34 난하주 6.

12) Ibid., 난하주 7.

13) Ibid., 9.

14) Ibid., 9-10.

이런 경로를 밟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구약성서 원문사본의 수는 1,600에 가까운데, 기원후 13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요 13세기의 것이 선, 12세기의 것이 여덟, 10세기 이전의 것은 매우 드물다. 구약성서의 완전한 사본으로서 가장 온전한 것이 기원후 1009년 사무엘·벤·야콥이 베긴 B19a 삐뜨로뵐리스(레닌그라드)의 사본인데, 이것은 알렘포의 세파르디움 유대아 회당에 보존되었다가 소실된 벤·아세르 본인의 사본(10세기)과 같은 종류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는 기원후 1세기의 이사야서가 전부 남아있고, 가장 오랜 것으로는 기원전 4세기 것으로 레위기의 한부분(一九 삼일-삼사, 二〇 이십-이삼, 二一 이사-二二 삼, 二二 사-오)이 있으니 이것을 페니치아 글씨로 쓰인 것이며, 또 이것이 기원후 10세기의 사본과 아주 같음을 보면, 성서가 얼마나 순전하게 보존되어 오던가를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여기 말한 것은 유대아교의 랍비들이 지켜오던 헤브레아 마소라 원문에 관한 것이다.¹⁵⁾

이 부분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사본에 대한 선종완 신부의 설명이다. 시대별 사본의 수를 밝히면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마소라 본문 사본이 1009년의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B19a)인 것을 알려 주면서 동시에 그보다 몇십 년 이른 “알렘포 사본”(Aleppo Codex, 10세기 초)도 함께 언급한다. 그러면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성서 두루마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 이후에는 약 3쪽에 걸쳐 라틴어 역본(옛 라틴어역, 불가타)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역본(칠십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과 그 개정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 사정과 역본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렇게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어 역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개론서가 없던 당시에 무척 파격적인 설명이다. 지금 읽어 보아도 무척 자세하고 정교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성서를 사랑한 학자였다. 그래서 그토록 고대 문헌을 파고들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대 문헌 지식을 활용하여 성서를 아름다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비롯음에”(창 1:1)라는 용어는 한국어 성서 번역사에 길이 남을 번역어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는 화가이고 음악가이다. 이분은 성서 지도를 3점 제작하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와 이스라엘 지도 그리고 고대 중동 지도이다.

15) Ibid., 10.

<사진 5> 선종완 신부가 그린 예루살렘 지도



선종완 신부의 성서 사랑은 그의 놀라운 그림 실력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감없이 드러난다. 성서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직접 예루살렘의 박물관을 매일 2시간씩 걸어서 오가며 이 그림을 모사하였다고 한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지금 보아도 훌륭한 지도가 아닐 수 없다.

<사진 6> 선종완 신부가 그린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



4. 선종완 신부와 “선종완역”(1958~1963)

선종완 신부가 1958년부터 1963년까지 번역한 9권의 구약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길게 해설을 곁들인 성경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성서 본문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것임은 말할 것 없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전통으로 보인다.¹⁶⁾

창세기의 경우는 성서 전체와 구약 전체 그리고 모세오경의 입문서 역할 까지 겸하고 있다. 그분이 번역한 다른 책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곁들여 언급해야 할 것은 선종완 신부의 구약 각 책 이름 목록 가운데 지금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판관기”, “에스텔”, “집회서”(集會書), “바룩”, “하바꾹” 등이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야훼”라는 신명이다.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한국 개신교회의 성경은 대부분 한문 성경 <대표본>(1854)의 영향으로 “여호와”(耶和華)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선종완 신부는 그의 개인 번역에서 거룩한 이름(*Nomen Sacrum*) 네 글자를 당시 성서학계의 견해를 반영하여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야훼”로 번역하였다.¹⁷⁾ 선종완 신부가 참여한 『공동번역 성서』의 구약 신명은 “야훼”이며 지금도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은 출애굽기 3:15와 6:2 등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4.1. “선종완역”의 “비롯음에”(창세기 1:1)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그분의 “비롯음에”라는 번역어이다. 히브리어 성서의 시작 말 בְּרֵאשִׁית을 “비롯음에”라고 번역한 것은 무척 신선한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를 무척 사랑했던 선종완 신부는 בְּרֵאשִׁית을 “비롯음에”로 번역하기 위해 8번이나 줄을 그어 가면서 이 번역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을 그분이 남긴 번역 원고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용 성경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은 “태초에”라고 번역하였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공인역 『성경』(2005)은 『공동번역 성서』(1977)를 따라 “한처음에”라고 번역하였다.¹⁸⁾ 사실 “태초에”라는 번역어는

16) 『스스성경』(1910)과 『신약성서 사복음·종도행전』(제18판, 1968) 그리고 『서간성서』(제5판, 1963)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200주년 신약성서』(1991)와 『주석성경』(2010)도 마찬가지이다.

17) 1938년에 중국 길림성의 용정(龍井)에서 나온 「십자군」(十字軍)이라는 잡지에서 김재준 목사는 창 1-4장을 번역하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18) 『공동번역 성서』는 “한 처음에”로 가톨릭교회의 『성경』은 “한처음에”로 약간 다르게

우리가 익숙하여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용어이지만 어려운 용어이다. 그리고 “한처음에”는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이면 “처음”이지 “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어색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선종완 신부의 “비롯음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토박이말이다. 그는 번역 주에서 “비롯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비롯음」은 영원한 천주 홀로 엄연히 계시고 만물이 아직 생겨나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를 뜻하니, 창조와 더불어 비로소 만들어 내셨음을 뜻한다.¹⁹⁾

“머리”라는 말에서 나온 ‘브레쉬트(בְּרֵאשִׁית)’의 ‘레쉬트(רֵאשִׁית)’를 선종완 신부는 “비롯음”으로 번역하면서 “비로소”와 연결시켜 아무것도 없을 때 천주에 의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다”라는 뜻의 “비롯하다”에서 만든 “비롯음”라는 말을 위의 짧은 설명에서 보듯이 “비로소”라는 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절로 창세기 1:1을 이해하고 있다.²⁰⁾

4.2. “선종완역”의 “빛이 생기어라”(창 1:3)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창세기 1:3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

천주께서 가라사대 「빛이 생기어라」하시매, 빛이 생기니라.

여기서 “선종완역”의 “생기어라”와 “생기니라”는 히브리어 אֵל의 번역이다. אֵל은 히브리어 동사 אָלַם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이 אָלַם 동사를 선종완 신부는 “생기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전서』(1911)는 “잇스라”와 “잇거늘”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곧 אָלַם 동사를 “있다”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개역한글』과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영어 성경 제임스왕역(KJV)이나 영어 개정역(RV)의 “be”²¹⁾를 따른 것으로

띄어쓰기를 했다.

19) 선종완 역, 『창세기』, 30, 각주 2.

20) 물론 창 1:1은 『공동번역 성서』와 『새번역』의 난하주처럼 “…지어 내시던(창조하시던) 맨 처음”과 비슷하게 상황절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영어 성경 NJPS가 창 1:1을 상황절로 번역한다(“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그런데 선종완 신부는 여기서 창 1:1을 절대절로 번역한다. 그리스어 칠십인역, 시리아어 페쉬타역, 라틴어 불가타역, 아랍어 타르굠크역과 같은 고대어 번역을 따르고 있다.

21)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KJV, RV)

보인다. 물론 <대표본>(1854)을 위시한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뜻의 有²²⁾로 번역하였기에 이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הָיָה 동사에서 파생한 הָיָה 가 히브리어로 3인칭 명령형이라는 점이다. 우리말의 어법은 2인칭 명령밖에 없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는 2인칭 명령형이 별도의 파생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3인칭 명령의 경우 별다른 형태는 없고 많은 경우 미완료태(Yiqtol)가 3인칭 명령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창세기 1:3의 הָיָה 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3인칭 명령을 2인칭 명령으로 바꾸어 번역해야만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종완역”은 “생기다”라는 번역어로 창세기 1:3의 הָיָה 동사를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한국어 성경 가운데 처음인 듯하다. 곧 הָיָה 동사를 존재(“있다”)가 아닌 과정(“생기다”)으로 이해하여 빛이 하느님의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선종완 신부의 이러한 הָיָה 동사 이해가 매우 혁신적인 것은 대부분의 외국어 성경이 “있다”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생기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하여 『공동번역 성서』(1977)는 창세기 1:3을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고 번역했다. 또한 민영진 박사가 “공동번역 평양교정본”이라고 그 특징을 설명한 『북한성경』(1990)²⁴⁾도 『조선어 스테디 성경』(2008)²⁵⁾도 이 부분을 똑같이 번역한다. 그리고 『새번역』(2001)도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도 이와 거의 같게 번역했다.²⁶⁾

22) “宜有光,即有光(焉)”(代表本, 브리지만-쿨벳슨譯); “要有光,就有了光”(세레체브스키 淺文理譯, 和合本, 和合本修訂版).

23) 지난 세기 초에 나온 히브리어 사전 *BDB*(225쪽)도 “나타나다”(to appear)로 창 1:3의 히브리어 הָיָה 를 이해하고 있다(“let light appear, and there light appeared.”). 이러한 견해는 게제 니우스-불 히브리어 사전도, 켈러-바움가르트너 히브리어 사전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사전이 창 1:3의 הָיָה 를 꼭 집어서 “생기다”라는 뜻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생기다, 벌어지다”(to come to pass, geschehen)라는 뜻이 이 동사의 일차적인 뜻이라 밝히고 있다(Ges-Buhl, 243; Koehler-Baumgartner, 243-244).

24) 민영진, “『북한성경』 제작 실무자”, 『새가정』 537 (2002), 15-16. 신약은 1983년에 나왔다. 민영진 교수는 북한 조선기독교도련맹의 강양섭 목사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북한성경』은 이영태라는 분이 제작 실무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영태 선생은 『성경전서』(1911)과 『성경 개역』(1938)의 구약 번역 작업에 참여한 이놀서(William D. Reynolds, 1867-1951)의 조사(assistant)를 지낸 분으로 알려져 있다.

25) 이 성경을 알려 주신 조영진 목사(고양조선축선교회)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26)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새번역』),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성경』).

4.3. “선종완역”의 “땅과 하늘”(창 2:4)

이번에는 창세기 2:4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종완 신부는 창세기 2:4 하반을 “천주 야훼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창세기 2:4상반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그 유래가 이러하였느니라”라고 번역한다. 곧 “하늘과 땅”(2:4상반)과 “땅과 하늘”(2:4하반)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문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신학의 차이이기도 하다. 성서학자들은 19세기 이래로 창세기 1:1-2:4상반을 사제 문서(P)라고 부르고 2:4하반을 야훼 문서(J)라고 부른다. 곧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에 창세기 2:4상반은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1:1의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제 문서(P)의 앞과 뒤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곧 사제 기자는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끝맺으면서 그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을 가둔다. 곧 공간이 시간을 가두는 것과 같은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사제들은 시간에 맞추어 하느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의도는 창세기 2:4하반의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야훼 문서(J)는 창세기 2:4상반의 “하늘과 땅”과는 다르게 2:4하반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세기 2장 끝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종완 신부는 야훼 문서(J)의 이러한 신학적인 의도를 알아차리고 창세기 2:4하반에서 “땅과 하늘”로 번역한 듯하다. 사실 칠십인역이나 페쉬타역과 같은 고대어 번역 성경들은 이러한 신학적 의도는 무시한 채 “하늘과 땅”으로 창세기 2:4하반을 번역했다.²⁷⁾ 특히 이 대목에서 불가타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선종완 신부는 가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평생 품에 끼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무덤에 그 라틴어 불가타역 성경을 함께 묻어드렸다고 한다. 선종완 신부는 창세기 2:4하반을 번역하면서 이토록 애지중지하였던 불가타역 성경의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어 본문의 신학적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냈다. 이 번역이 한국어 성경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의 파격적인 번역이라는 것은 『성경전서』(1911)과 『성경개역』(1938) 그리고 『개역한글』(1961)에 걸쳐 계속해서 창세기 2:4하반을 “하늘과 땅”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7) 아람어 타르굠크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땅과 하늘”로 번역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 KJV (1611)와 RV(1881)과 JPS(1917) 또한 “(the) earth and (the) heaven”으로 번역했다.

한국어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1977)과 『표준』(1993)과 『개역개정』(1998)에 와서야 비로소 “땅과 하늘”로 창세기 2:4하반의 이 표현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종완의 『창세기』 2:4하반에 등장하는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은 매우 획기적인 번역이다. 『공동번역 성서』은 이 부분에서 “선종완역”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한성경』(공동번역 평양교정본, 1984)도 가톨릭교회 『성경』(2005)도 『조선어 스테디 성경』(2008)도 똑같이 “땅과 하늘”로 이 부분을 번역한다.

4.4. “선종완역”의 “내가 있노라”(출 3:14)

그 다음 “선종완역”의 출애굽기 3:14를 잠깐 설명하기로 하자.

천주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는 『내가 있노라』(에훼)하는 이로라」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내가 있노라”(에훼)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라」 하시며,²⁸⁾

선종완 신부는 위의 인용처럼 잘 알 수 없는 출애굽기 3:14의 히브리어 표현 אֲנִי אֶהְיֶה אֲשֶׁר אֶהְיֶה를 “나는 ‘내가 있노라’하는 이로라”로 번역한다. 그리고 אֶהְיֶה는 “내가 있노라”로 번역한다. 이 표현을 한국 개신교회의 첫 공인 성경 『성경전서』(1911)은 “나는 즈연히 있는 자”로 번역했다. 그런데 1938년에 나온 『성경 개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개역한글』(1961)과 『개역개정』(1998)까지 이어진다. 곧 『성경전서』와 개역 전통의 특징은 אֶהְיֶה의 어근인 히브리어 동사 אָהַב를 번역하면서 “있다”라고 번역하고 여기에 “자연히”(『성경전서』)나 “스스로”(『개역한글』)라는 말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은 출애굽기 3:14의 이 표현을 “나는 곧 나다”와 “나다”로 각각 번역한다. 이 번역은 곧 “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어서 나오는 『표준』의 개정판인 『새번역』까지 이어진다. 『새번역』 역시 『공동번역 성서』처럼 “나는 곧 나다”와 “나”라고 하는 분”이라고 각각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표준』은 개역 전통을 따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곧 『새번역』은 여기서 개역 전통을 따랐다가 『공동번역 성서』을 따라 “나”에 초점을 두어 번역하였다. “스스로 있다”를 바꾸어 “스

28) 선종완 역, 『출애굽기 · 레위기』, 7.

스로”를 빼고 “나는 곧 나” 또는 “나”로 번역하여 “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교회의 공인역 『성경』(200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가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있는 나다”와 “있는 나”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14의 번역은 약 100여 년의 한국어 성경 번역 역사에서 “자연히”와 “스스로”를 “있다”라는 말 앞에 집어넣은 번역에서 “있는 나”나 “나다”처럼 “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종완역”은 앞의 인용에서 본 것처럼 “내가 있노라”라는 말로 **אני**를 번역하여 “나”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러한 전통은 『공동번역 성서』와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북한성경』(공동번역 평양교정본, 1984)과 『조선어 스테디 성경』도 이 번역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5. 선종완 신부와 『공동번역 성서』(1977)

1977년 부활절에 나온 『공동번역 성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구교가 함께 번역하여 내놓은 성경이다. 이 번역 성경의 구약은 개신교회의 문익환 목사와 광노순 목사 그리고 천주교회의 선종완 신부의 작품이다. 특별히 선종완 신부는 임종하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에서 이사야 번역의 마지막 교정을 보았다고 한다.²⁹⁾ 당시 문익환 목사는 시국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고 광노순 목사는 학위를 마치러 다시 미국에 되돌아간 상태였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책임자로는 선종완 신부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임종하기 일주일 전까지 번역의 마무리 교정을 병상에서조차 하신 것이다.

이러한 『공동번역 성서』는 파격적인 번역으로 1977년 부활절에 나왔을 때 세간을 놀라게 했다. “야훼”라는 신명을 사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하느님”으로 표기한 것은 일부의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회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 익숙한 고유명사가 많이 달라진 이유로 결국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는 『공동번역 성서』 사용을 기피했다. 당시 일부의 감리교회와 기독교장로회가 이 『공동번역 성서』를 교회에서 사용하기는 했으나 예배용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성공회와 한국정교회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공동번역 성서』를 예배용으로 사

29) 2021년 9월 1일 과천 성모영보수녀회의 정 실비아 수녀의 증언.

용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공동번역 성서』가 나온 이래로 2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천주” 대신 “하느님”을 사용하고 또 “야훼”라는 신명도 사용하기로 한다. 물론 지금은 자체적으로 번역한 『성경』(2005)을 예배용으로 사용하지만 여전히 30여 년 동안 『공동번역 성서』에 익숙해진 탓에 이 천주교회의 『성경』에 낯설어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주교회 성경이 “야훼”라는 신명을 모두 “주”나 “주님”으로 바꾸긴 했으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야훼”라는 신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선종완 신부의 개인 번역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Nomen Sacrum*)은 선종완 신부의 번역어이고 1958년에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펴낸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5.1. 선종완 신부의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의 일부(152-154쪽)³⁰⁾

그렇다면 선종완 신부는 『공동번역 성서』에 어떠한 공헌을 남겼는지 그가 남긴 글을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선종완 신부가 하박국 2:4를 주제로 쓴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의 앞부분이다. 논문 속에서 “본문 비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이 부분(152-154쪽)은 선종완 신부가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하박국을 번역할 때 얼마나 고심하면서 작업했는지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 뒤에 약간의 설명과 평가를 덧붙이기로 하자.³¹⁾

『공동번역 성서』 초고에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보았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나를 믿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30) 말씀의성모영보 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유고집 - 말씀으로 산 사제』, 152-154. 이 글은 본디 「가톨릭대학 論文集」 2 (1976), 5-34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31) 이하 5.1. 전체는 선종완 신부의 논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1.1. 본문 비판

이렇게 풀이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마소라 히브리 원문을 글자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보라(hinnē) 우쫘대로 있구나('ppelāh), 마음을(naphshō) 바르게 (yashrāh) 지니고(bō) 있지 않구나(lō'). 올바른 사람도(wešaddiq) 제가 성 실패야(be 'emūnāthō) 살 길이 열린다(yihyeh).

칠십인역에서는 ἐὼν ὑποστείληται(뒤로 물러선다면)라고 되어 있다. 원문을 'hēn(만일) ullaph(물러선다면)'이나 'hēn(만일) 'uppal(게을러진다면)'이라 읽었을 것 같다. 아퀼라(Aquila)는 ἰδοῦ νοχέλευου ἐνοῦ(무성의 하구나)라고 되어 있다. 원문을 'hinne he'āšēl'이라 읽었을 것 같다. 유다 사막 사해 안에서 발견된 칠십인역 수정본(Rec.)에는 '어두움'('aphlāh)이라고 되어 있다.

마소라의 '웁빨라'의 끝 자음이 ph보다 l이라는 뒷받침을 아퀼라와 칠십인역 수정본에서 볼 수 있다.

Aquila는 둘째 자를 잘못 보아서, 칠십인역 수정본은 첫째 자를 잘못 들어서 그렇게 달라졌을 것 같다.

마소라의 '힌느네 웁빨라'를 한마디로 붙여 읽으면 'hanne 'ephal'이 된다(K. Budde, Breitreiher, O. Procksch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재귀형 분사에 관사를 붙인 것이 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다. 이 Nominativus pendens를 이 구절 전반부 끝말 'bō'로 받아서 이 문장의 목적어로 삼을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자를'이라 하면, '로야슈라 나프쇼 보'라고 길고 어색한 단어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뜻하여 후반부의 '쌩디크'(올바른 사람)와 대조시킬 필요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올바른 사람'과 대조를 이룬다.

영어 성경 ICC, NAB, NEB도 Rash man, the reckless라 번역한 것은 마소라의 뜻을 떠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시리아 번역에는 "'awwlāh'라 읽어 '악한 자'(ha 'awwāl)를 가리킨다. 벨하우젠(Wellhausen), 할러(Haller), 마르티(Marti)는 이를 따랐다. 후반부의 '올바른 사람'(šaddiq)과 대조가 잘 된다. 이 경우에도 셋째 자는 l인 것을 눈여겨볼 것이다.

불가타는 'incredulus'(믿지 않는 자)라 하였다. 성예로니모가 'āphal의 사역형을 민수기 14:44에서 'Contenebrari'(어두워지다)라 번역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P. Schlegg 참조).

그러나 반 후나커(Van Hoonaker)는 칠십인역을 따라 "'ullaph'(물락한다)로 보고 아모스 8:13; 이사야 51:20에 그 유사한 곳을 들었다. 이것을 따른 것이 예루살렘 성서(Jerusalem Bible, Junker, Rinaldi, Bernini, M.

Delcor)이다.

이것 말고는 스텐젤(M. Stenzel)이 “악을 행하는 자(po‘el ’āwel)는³²⁾ 그런 짓으로(bō) 제 목숨을(naphshō) 지키지 못한다(lo’ ishmōr)”³³⁾ 고쳐 읽으며, 후반부와 만족할 만한 대조를 이루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올바른 사람’,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와 ‘살 길이 열린다’ 또 ‘그런 짓으로’와 ‘성실함으로’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마소라의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있지 않구나’가 칠십인역에는 ‘οὐκ εὐδοκεῖ ἡ ψυχή μου αὐτῷ’라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나는(naphshi) 그에게(bō) 호감을 가질 수(raṣtah) 없다(lo’)’로 보았을 것이다.

마소라의 한 사본과 아퀼라도 칠십인역의 ‘나피쉬’(나는)를 따랐다. 『공동번역 성서』가 이것을 따라 전반부를 풀어 이렇게 번역했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후반부에 마소라의 ‘제가 성실하여야’(be ’emūnātō)가 칠십인역에는 ‘나에게 성실하여야’(ἐκ πίστεώς μου)로 되어 있지만 Wc 사본에는 ‘나에게’(μου)가 없다. 칠십인역 사본에도 아퀼라에도 마소라같이 ‘제가 성실하여야’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서에 인용된 것은 ‘나의 의인’(ὁ δὲ δίκαιός μου)으로 된 사본이 많다.³⁴⁾

성실성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 보이는 것이며, 또 자신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마찬가지다.

『공동번역 성서』에서 “나를 믿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라”,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라고 번역한 것은 누구나 실천할 원칙을 드러낸 데 지나지 않는다.

5.2. 선종완 신부의 위의 글에 대한 설명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선종완 신부가 하박국을 번역할 때 철저히 본문을 비평을 거쳤다는 점이다. 먼저 선종완 신부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본문 자체가 어려워 번역이 잘 되지 않는

32) “Meinrad Stenzel, “Habakuk, 2, 1-4. 5a,” *Biblica*, vol. 33, 1952, 508에 나열된 구절(시편 119, 3; 58,3; 82,2; 욥기 34,32)에 보라.”(선종완 신부의 각주)

33) “위 논문 p.509에 나열된 구절(잠언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에 보라.”(선종완 신부의 각주)

34) “히브리서 10:38을 가리킨다.”(선종완 신부의 각주)

하박국 2:4의 앞부분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러면서 고대 역본도 함께 살펴 보는데 그리스어 칠십인역과 시리아어 페쉬타역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역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분석하면서 고대 성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를 추정하기도 한다(153쪽).

특히 칠십인역의 루키안(Lucian) 개정본까지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원 마소라 본문의 이해가 어떠했을까를 살펴본다.

“마소라의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있지 않구나’가 70인역에는 ‘οὐκ εὐδοκεῖ ἡ ψυχή μου αὐτῷ’라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나는(naphshi) 그에게(bō) 호감을 가질 수(raṣtah) 없다(lo)’로 보았을 것이다.”

선종완 신부가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 방식에 대해 쓰신 앞의 글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의 154쪽에 나오는 설명이다. 그런데 선종완 신부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대구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텐젤이라는 학자의 설명에 귀 기울인 것이다.

“이것 말고는 스텐젤(Meinrad Stenzel)이 “악을 행하는 자(po‘el ‘āwel)는³⁵⁾ 그런 짓으로(bō) 제 목숨을(naphshō) 지키지 못한다(lo’ ishmōr)”라³⁶⁾ 고쳐 읽으며, 후반부와 만족할 만한 대조를 이루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올바른 사람’,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와 ‘살 길이 열린다’ 또 ‘그런 짓으로’와 ‘성실함으로’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학자를 인용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서의 다른 곳에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학자가 인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Meinrad Stenzel, “Habakuk, 2, 1-4. 5a,” *Biblica*, vol. 33, 1952, p. 508에 나열된 구절(시편 119, 3; 58,3; 82,2; 욥기 34,32)에 보라.”(위의 글, 153쪽)와 “위 논문 p. 509에 나열된 구절(잠언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에 보라.”(위의 글, 153쪽)라는 각주를 특별히 단다. 그 까닭은 성경 여기저기에 하박국 본문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구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듯하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히브리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원문의

35) “Meinrad Stenzel, “Habakkuk, 2, 1-4. 5a,” *Biblica*, vol. 33, 1952, p. 508에 나열된 구절(시편 119, 3; 58,3; 82,2; 욥기 34,32)에 보라.”(선종완 신부의 각주)

36) “위 논문 p.509에 나열된 구절(잠언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에 보라.”(선종완 신부의 각주)

특징을 번역문에도 반영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외에도 선종완 신부는 고대 그리스어 번역도 기원전 3세기~기원전 1세기에 나온 칠십인역 이외에도 기원후 1세기에 나온 아퀼라(Aquila)역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153쪽). 그리고 본문 비평을 하는데 신약 히브리서 10:38에 인용되어 있는 칠십인역 하박국 2:4의 여러 사본까지도 세심하게 평가한다(154쪽).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는 이스라엘 사해의 쿨란 지역에서 1947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쿨란 동굴의 성서 사본도 참조하면서 히브리어 본문의 이해가 어떠했을까를 설명한다(153쪽). 그리고 영어 성경도 참조하여 하박국 2:4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살펴보기도 한다. 선종완 신부는 미국에서 나온 영어 성경 NAB나 영국에서 나온 영어 성경 NEB도 언급한다(153쪽).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성서(La Bible de Jérusalem)를 언급하는데 아마도 이 성경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세계 최초로 함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인 듯하다. 한국어 『공동번역 성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구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일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서 번역에 임했던 선종완 신부의 자세를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하박국 2:4의 전반부의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낳았다(154쪽).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하박국 2:4상반, 선종완 『공동번역 성서』 초역)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하박국 2:4상반, 『공동번역 성서』)

이렇게 선종완 신부의 하박국 2:4의 초역과 『공동번역 성서』를 비교해 보면 앞부분은 거의 같다. 다만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가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로 살짝 바뀌었다. 곧 “바로”가 “옳게”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하박국의 이 부분은 선종완 신부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나온 1977년의 『공동번역 성서』와 1999년의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에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1984년에 나온 『북한성경』(공동번역 평양교정본)의 구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2008년에 나온 『조선어 스테디 성경』도 『북한성경』의 본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스티디 성경이다.³⁷⁾

6.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선종완 신부는 한국 가톨릭교회 성서 번역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구약의 경우가 그렇다. 선종완 신부는 수메르어를 포함하여 북서방 셈어뿐만 아니라 현대어에 능할 정도로 성서학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선종완 신부는 예술성 또한 뛰어나 그가 아름답게 그린 성서 지도가 네 점이 남아 있다.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키워서 성서 번역 작업의 비용을 댈 정도로 성서 번역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다.

또한 선종완 신부는 “야훼”라는 신명을 번역어로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이고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제2경전(외경)에 들어 있는 “바룩”을 번역했다. 또한 그의 한국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비롯음에”라는 토박이말을 창세기의 첫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종완 신부를 가톨릭교회 성경 번역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선종완역”은 비록 구약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공동번역 성서』와 『북한성경』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이다. 물론 『공동번역 성서』는 선 신부가 직접 번역에 참여한 성경이기도 하다. 위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극히 일부의 구절(창 1:1, 3; 2:4; 출 3:14)을 예로 설명했지만 선종완 신부의 번역어는 이들 성경에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선종완역”은 1958년에 이미 성경 본문에 자세한 소제목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대지 넣은 신약전서 가로쓴 한글판』과 같은 해에 나온 성경이다. 곧 한국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의 성서까지 포함하여 독자를 위하여 소제목을 달고 가로쓰기로 펴낸 성경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 주는 성경이 “선종완역”이다.

또한 선종완 신부가 1976년에 쓴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의 앞부분은 그분이 『공동번역 성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치열한 학문적 엄격성과 섬세함으로 하박국 2:4 본문을 연구하고 번역했는지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아마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 가운데 성서 번역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유일한 글이 아닐까 생각한다.

37) 『조선어 스티디 성경』, vi.

이렇게 선종완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선종완역”(1958-1963)과 『공동번역 성서』(1977)는 한국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에게도 크나큰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주제어>(Keywords)

성서 번역, 선종완 신부, “선종완역”(1958-1963), 『공동번역 성서』(1977), 창 1:1, 3; 2:4, 하박국 2:4, 야훼.

Bible translation, Father Laurentius Syen, Syen’s Version of the Bible (1958-1963),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Genesis 1:1, 3; 2:4, Habakkuk 2:4, Yahweh.

(투고 일자: 2023년 7월 1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가톨릭용),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스스성경』(四四聖經), 1910.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성경 개역』, 京城: 聖書公會, 1938.
『성경전서』,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성경전서』,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1990. (『북한성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聖芬道修道院 역, 『서간 성서』. 제5판. 서울: 가톨릭出版社, 1963.
『신약성서 사복음·종도행전』. 제18판. 서울: 가톨릭出版社, 1968.
『200주년 신약성서』,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1.
『조선어 스테디 성경』, 서울: 순교자의 소리, 2008.
『주석 성경』,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10.
『舊約全書』, 京都: 美華書院, 1874. (북경관화역 구약)
『舊約全書』, 大美國聖經會, 1896; 원출판년 1864. (브리지만-컬벳슨역)
『文理 舊新約聖書』, 聖書公會印發, 1854. (대표본)
『聖經 和合本 (上帝版)』, 香港, 香港聖經公會, 1961. (원출판년 1919) (화합본)
『聖經 和合本修訂版 (神版)』, 台臺灣臺北: 台灣聖經公會, 2015. (화합본 수정판)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Second Edi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NJPS)
The Holy Bible, The Revised Version, Oxford: The University Press, 1925; org. ed. 1881. (RV)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Masoretic Text, A New Translatio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55; org. ed. 1917. (JPS)
곽노순, “히브리말 … 몽둥이 말이고 한국말은 비단 말”, 「성경원문연구」 45 (2019), 325-339.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서울: 나이테 미디어, 2015.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성서번역 자료집』(전 41권), 과천: 성모 영보수녀회, 2020.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유고집 - 말씀으로 산 사제』, 서울: 성 바오로출판사, 1984.
- 민영진, “『북한성경』 제작 실무자”, 『새가정』 537 (2002), 15-16.
- 閔泳珍, 『國譯聖書研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閔泳珍, “共同翻譯 舊約聖書の 翻譯特徵”, 『신학사상』 22 (1978), 67-78.
- 박형신 편, 『존 로스 자료집』, 서울: 한국교회사학회, 2020.
- 이성우,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성서번역사와 우리말 성서번역의 의미”,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지음,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상)』,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3, 103-128.
- 李元淳, “聖書國譯史論考”, 『민족문화』 3 (1977), 32-50.
- 정인준, “선종완 신부의 삶을 통한 가르침”, 『가톨릭신학과사상』 51 (2005), 162-193.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alrendon Press, 1907. (BDB)
- Buhl, F.,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n Testament*, Berlin; Göttingen; Heidelberg: Springer-Verlag, 1962. (Gesenius-Buhl)
- Koehler, L., and Walter B.,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M. E. J. Richardson, tran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Koehler-Baumgartner)

<Abstract>

**Father Laurentius Syen (1915-1976), a Pioneer i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Bible:
Focused on Syen's Version of the Bible (1958-1963) and
the Korean Common Bible (1977)**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Father Laurentius Syen, whose Korean name is Sun, Jong-wan can be called a pioneer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Bible translation. He had excellent knowledge of Biblical Studies, being fluent in modern and North-West Semitic languages, including Sumerian. In addition, Father Syen was also a man of outstanding artistry, who drew four beautiful Bible maps. With these maps, he wanted to help not only the seminarians but also the Bible readers. His enthusiasm for Bible translation was so great that he would raise quails to cover the costs for Bible translation.

Indeed, Father Syen was the first person to use the divine name *Yahweh* (야훼) as a Bible translator, 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e translated the Book of Baruch contained in the Second Canon (Apocrypha). His great love for the Korean language can be assumed from the fact that he used native Korean word '비롯음에 (bee-rot-eum-eh meaning *in the beginning*)' as the first word of his translation of Genesis. It is in this respect that Father Syen is called a pioneer in the Catholic Church's Bible translation work.

Syen's Version of the Bibl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the North Korean Bible (1984), and the Catholic Bible (2005) although it wasn't a full translation of all Old Testament books. Of course, Father Syen did participate i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Only few verses of Genesis and Exodus (Gen 1:1, 3; 2:4; Exo 3:14) are given as examples in the paper, but expressions from Father Syen's Version of the Bible have been passed down in those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In addition, the first part of Father Syen's paper, *Even the right person can live by trusting*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 1976) clearly shows his

intense academic rigor and sensitivity in studying Habakkuk 2:4 text to translate the verse when he wa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project. It is probably the only writing in Korean that reveals how intense the work of translating the Bible is.

I believe Father Syen's own translation (1958-1963) and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are a great legacy not only for the Korean Catholic Church but also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